

지난해 1,735만 명 방문, 전년 대비 3% 증가

강화군, 관광객 2천만 명 시대 연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누적 관광객이 1,735만 명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화군 관광 빅데이터’는 관광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통신과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관광객 수치를 분석한 자료이다.

2023년 분석에 따르면 봄 콘서트, 강화 와글 와글 축제, 진달래 꽃구경, 문화재야행, 10월 사랑 콘서트 등 축제 시즌인 4~5월과 9~10월에 군 전체 관광객 수의 약 40%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군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강화군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강화를 찾았고, 다음으로 40~50대 순이다. 연령별 선호 관광지는 40대 이상 관광객은 가족 단위로 방문할 수 있는 강화 원도심, 마니산, 풍물시장 등을 주로 방문했고, 20~30대는 체험형 관광지와 카페가 있는 길상면과 화도면을 주로 방문했다.

또한, 지난해 강화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만 2천여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관광객은 내국인 관광객과 달리 휴가철인 7월부터 10월까지 방문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군은 이번 설 연휴에도 귀성객을 포함한 약 41만 명이 강화를 방문했으며, 이는 작년 설 연휴 대비 1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을 추진하며,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화개정원 전망대



화개정원



고려산진달래



문화재야행



강화의글와글

강화군, 2024년 역점사업 보고회 개최... ‘성과 체감하는 군정’ 추진

유천호 군수, 군민과의 약속 지역발전과 복지증진 위한 사업 속도 강조



2024년도 강화군 역점사업 보고회

유천호 강화군수가 19일 부군수, 국장,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역점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문화예술 도시 건설 ▲미래 교육

혁신 ▲안전한 강화 ▲농·축·어업 육성 ▲사람이 모여드는 관광도시 조성 ▲미래성장동력 확대 ▲삶의 질 혁신 등 강화군의 안전·관광·복지·교통을 총망라한 핵심 계획으로 이 계획을 실현화하기위한 본격적인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를 실현할 역점사업 57건을 선정해 매달 추진 상황과 방향을 점검할 것을 계획했다.

주요 역점사업으로는 ▲로컬 팜 빌리지 조성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건립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강화군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군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시·외부 기관과의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시의원을 찾아가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이자 군민과의 약속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어서 “2024년, 올해는 민선 8기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해인 만큼 역점사업으로 계획되었던 사항들을 검토하여 속도감 있게 실행 및 추진해 군민이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보급 업무협약 체결 강화군 나들미, 강화의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향토쌀!



강화군 나들미 업무협약 체결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16일 신품종 ‘나들미’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화군 및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4개 기관 간에 체결됐으며, 지난 4년간 지역 적응에 성공한 나들미 보급종 생산 및 유통, 홍보 등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약속했다.

강화군과 농촌진흥청이 공동 개발한 나들미는 지난 2019년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 개발 사업을 필두로 2023년 6월 29일에는 국립종자원 정식 품종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고품질 쌀 육성단지 등 100ha에서 540여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홈플러스 간석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다. 또한, 2024년도 인천광역시 학교 급식용 품종에 선정되었고, 농협RPC 계약 등으로 약 1,000ha가 재배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품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유관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나들미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전국 최고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유산 안전 경비원 직무 교육 실시 강화군, “문화유산은 우리가 지킨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6일 강화 역사박물관에서 문화유산 안전 경비원 30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 경비원의 주요 임무와 문화유산의 중요성, 화재 등 재해로부터의 현장 초동대처와 비상 보고, 긴급 대응 방안, 소방시설 운용 실습 등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또한, 문화유산에 낙서 등 인적 재난 요인으로 발

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봄철 건조한 날씨 속 발화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사 상황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했고, 소화기·소화전 등을 직접 작동해 보는 실습을 통해 행동 체계를 숙지하는 시간을 가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도 얻었다.

한편, 강화군은 용흥궁과 총렬사를 비롯한 19개

목조문화유산에 CCTV, 불꽃 감지기 등을 설치했고, 강화군 통합관제센터 등에서도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다가오는 봄철은 화재 예방과 사고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문화유산 안전 경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백하 기자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교육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교육

3월 4일~4월 30일 중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해 신청 가능 강화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4월 30일까지로,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모든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대면 접수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구간별·단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농 직불금 지급 금액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돼, 면적직불금이 130만 원 미만인 농가는 소농 직불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면적직불금 대신 소농 직불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은 2월 중에는 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공익직불 콜센터(1334)를 통해 비대면 신청을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향후 부정수급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강화군의회, 지역발전과 군민화합 위해 전문성 강화에 힘써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이 최근 강화군 곳곳을 방문해 군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로 분주하다.

관내 주요사업현장·민원현장은 물론 마을회관 곳곳을 발걸음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한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더 나은 군민의 삶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박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정책지원관 제도 정립과 역대 강화군의회 최초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활동, 그리고 활발한 의정연수 교육을 통해 정밀한 입법활동·예결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시켰다는 평을 듣고 있다.

최근 박 의장은 “처음마음 그대로,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군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강화군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3월 임시회를 통해 군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행정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조례안을 개정하고,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며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이다.



지역주민현장간담회



풍물시장 조합원 척사대회



강화 농업인 지원제



사랑방간담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강화신협 정기총회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보조사업자 대상 ‘보탬e’ 사용 교육 강화군, 눈먼 돈 없앤다…지방보조금 사용자 교육 실시



보탬e 교육사진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3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과 민간 보조사업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교육을 진행했다.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구축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이 올해부터 전면 개통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 보조사업자도 이제 지방 보조사업 수행 시 ‘보탬e’를 사용해야 한다.

군은 보조금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와 민간 보조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공모부터 정산까지 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화해서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기초교부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 관리를 진행했고, 민간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회원가입 및 단체관리 ▲공모사업 신청 ▲수행 사업 계획신청 ▲집행관리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탬e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보조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계약실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문성 강화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업무 추진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9일 회계 및 사업 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계약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사이동에 따라 계약 업무를 새로 담당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담당자의 계약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계약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권혁훈 지방 계약 전문관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으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관련 법규 및 실무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지속적인 직무 교육을 통해 적법성과 공정성이 기본이 되는 계약업무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도를 높여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300여 명 및 지역주민 등 대대적인 제설작업 실시

강화군, 눈삽 들고 행정력 총동원... '제설 총력전'



강화군, 눈삽 들고 행정력 총동원... '제설 총력전'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21일, 관내 발효된 대설주의보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설작업에 나섰다.

군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

전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마을안길 등 취약 구간을 중점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대설로 인한 군민 통행 안전을 위해 군청 공무원 300여 명과 지역주민, 자율방재단 및 산불진화대 등과 협력해 통행이 많은 주요 인도를 대상으로 제설을 진행했다.

한편, 강화군은 신속한 제설작업뿐만 아니라 상황관리팀 구성과 실시간 재난 예방 문자 발송, 마을 방송 및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 등 대설로부터 주민들의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사고 및 주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인도 결빙으로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사고를 겪지 않도록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일 지속되는 한파와 대설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홍보에도 힘써달라”며,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다방면에서 면밀히 추진해 나가달라”고 전했다.

강화군, 동절기 모기 유충 박멸 힘써



강화군 동계 모기유충 방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군민 건강을 위해 여름철 모기 사전박멸에 나섰다.

이상고온으로 모기의 활동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3월까지를 동절기 유충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방역에 나선 것이다.

이에 강화군보건소는 모기 유충 서식지 실태조사 후 서식 가능성이 있는 하천 및 수로, 웅덩이, 집단시설 정화조 등에 친환경 방역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동절기는 월동 유충의 서식 환경이 제한적이고 영양상태가 고갈되어 있어 소량의 약품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기 유충 1마리당 성충 500마리 정도의 박멸 효과가 있다”면서 “취약지에 선제적 방역을 실시해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같은 모기 매개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집 주변 물웅덩이와 화분 받침의 고인 물을 제거하기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강화군, 총 43개소 교량 안전 점검 실시



강화군, 도로시설물 교량 안전 점검 실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공중이용시설물(교량) 유지관리 및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 후, 관내 주요 도로시설물인 교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 등급을 재산정하고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수하며,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수·보강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군은 지난해 안전 점검을 마친 소교량(길은교 등 10개소)은 (구)강화대교 보수·보강공사는 올해 상반기 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빙기를 대비해 도로 교량 기초의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봄철 해빙기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군민이 안전하도록 시설물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 최백하기자

인천강화경찰서, 범죄안전확보위해 인천기동순찰대 투입 “주민 큰 호응”

인천강화경찰서(서장 남규희)에서는 지난 27일 풍물시장 오일장, 조양방직, 수협사거리등 관내 다중밀집지 및 범죄취약지에 ‘묻지마 흉기 난동’등 이상동기 범죄발생 예방등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청 기동순찰대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인천 기동순찰대는 지난 21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인천을 남북으로 나눠 2개 부서 총 175명 규모로

편성되어 인천 전 지역의 범죄예방 순찰 및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에 강화경찰서에서는 관내 주요 관광지 및 다중밀집지 치안수요를 분석해 필요 시간에 탄력적으로 기동순찰대 경력을 요청 배치하여

교통체증 관리등 지역경찰 지원 업무 및 주민 친화적 범죄예방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특히 이날

실종아동 조기 발견 등 적극적인 순찰활동으로 강화주민의 큰 호응을 받았다

남규희 인천강화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축제 행사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지에 기동순찰대를 요청 배치하여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치안정책에 반영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화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범죄안전확보를 위한 인천기동순찰대



범죄안전확보를 위한 인천기동순찰대

2월 22일~3월 15일 신청...관내 5개월령 이상 실외 사육견 대상 강화군,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유실·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실외 사육견 215두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2일~3월 15일까지로, 5개월령 이상의 실외 사육견을 관내에서 기르고 있다면 사육장 소재지 기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는 우선지원 대상자이며, 선정되면 지정된 동물병원과 일정을 협의한 후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실외 사육견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개로, 그동안 읍·면에서는 실외

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과 야생화로 사람과 가축의 안전이 위협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인식됐다.

이번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동물등록(내장형)도 필수로 진행해 유실·유기견 발생을 사전 방지할 수 있다. 총비용의 90%를 지원받고 나머지 10% 및 기타 비용(약제비, 동물등록 수수료 등)은 본인 부담이다.

군 관계자는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은 무분별한 임신으로 야생화된 유기견(들개)의 개체 수 증가를 사전 예방하고, 유실·유기견 발생 방지 및 주인 반환율 향상의 효과가 있다”며 “사업 신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화군,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우렁이 입식비 60%, 친환경 인증 검사비 70% 지원 강화군, 친환경농업 지원 3월 22일까지 신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오는 3월 22일까지 2024년 친환경농법(우렁이)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이를 위해 예산 약 2억 원을 투입해 우렁이 입식비의 60%, 친환경 인증 검사비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에서 벼를 재배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이다.

지원은 우렁이 입식 1ha당 60kg, 지원 단가는 8,000원/kg으로 작년 대비 1천 원 상승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는 신규 및 연장 인증을 받을 경우, 건당 최대 37만 8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친환경농법(우렁이)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 접수 후 친환경 인증 여부 등을 검토해 농가별 우렁이 공급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인들이 초기비용과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은면 고능리 주민, 성금 기탁으로 이웃사랑 실천



나영식님 성금기탁



나영식 작 - 꽃화분

강화군 불은면(면장 염명희) 고능리에 거주하는 주민 나영식 씨가 지난 21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기부자는 “사회의 그늘진 곳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한 나눔과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염명희 불은면장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탁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내의 취약계층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나영식씨는 치매예방을 위하여 시간이 나는대로 틈틈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모은 작품을 책으로 제작해서 무료로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눔의 삶을 몸소 모범을 보임으로써 소외계층에 작게나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람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행복 전도자일 것이다.

길상면, 주거환경 취약 7가구에 공기청정기 지원



길상면 공기청정기 전달

강화군 길상면(면장 김재구)이 관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뽀뽀한 냄새 안녕! 좋은 향기 가득! 사업」의 일환으로 별이는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지난 20일 주거 취약계층 7가구에 공기청정기를 전달했다.

이는 강화군이 추진하는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김재구 면장이 직접 방문해 필터 교체 방법 등을 안내하고 고충을 청취했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길상면에서 공기청정

기를 지원받게 된 박 모 어르신은 “혼자 산 지 오래되어 건강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 지원과 더불어 걱정의 마음을 전달해주니 고마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재구 면장은 “이번에 전달한 공기청정기가 주거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통해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길상면 이장단, 도로변 인도 제설작업 실시



길상면 이장단 제설작업

강화군은 길상면 이장단(단장 심장섭)이 지난 22일 폭설로 통행이 어려운 관내 도로변 인도에 눈이 쌓여 군민의 통행이 불편을 겪는 것에 강화군과 이장단의 빠른 조치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더불어 김재구 길상면장이 직원들과 함께 이장단이 실시하는 제설작업에 동참해 격려했다. 김재구 면장은 “술선수범해 주신 이장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온/오프라인 융합 마케터 양성 교육생 모집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센터장 윤정혁)가 인천시 주관 ‘2024년도 시·군·구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사업비 총 1억 원을 확보해 강화군민 20명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미취업자, 예비창업자, 영세 자영업자, 졸업예정자(학생)이며,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 등의 교육을 통해 온/오프라인 융합 마케터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2일까지로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에서 진행된다. 훈련생에게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윤정혁 센터장은 “이번 온/오프라인 융합 마케터 양성 훈련을 통해 강화군민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면서 “판매와 유통 방식을 다각화해 지역 경제 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창업 희망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 마케터 양성 참여자 모집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창업·창직

모집(대상) | 취·창업 희망하는 강화군민 모집기간 | 2024. 02. 08(목) ~ 03. 22(금)

신청기간 | 2024. 04. 18(목) ~ 09. 06(금) 유선문의 | 032-934-3088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문의 ▶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창업팀 ☎ 032-934-3088

배준영 의원,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수상

- ◆ 배준영 의원,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소비자친화입법 부문 수상
- ◆ 배준영 의원, “국민께서 경제생활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소비에 합당한 가치를 얻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만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



배준영 의원,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수상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22일(목)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소비자친화입법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 기업과 개인에게 주는 상으로, 이날 배 의원

이 수상한 '소비자입법부문'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내지는 잠재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입법가에게 수여된다.

배준영 의원의 경우 21대 국회 임기 동안 펼친 소비자 중심의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 의

원은 △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경제안정특별위원회' 등 소비자 권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 유류세 인하 범위를 50%까지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금융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 △ 반려동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다수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국민께서 경제 생활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고 합당한 가치를 얻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그간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 적십자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 △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19주년 공로패 △ '참 관장은 의원상'(MBN·여성유권자연맹 선정) △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 안덕근 산자부 장관 만나 강화군 남단 경자구역 지정 건의

- ◆ 배준영 의원, 지난 23일(금) 국회에서 안덕근 산자부 장관 만나 '강화군 남단 경자구역 지정 건의서' 전달
- ◆ 배준영 의원, “강화군이 수도권·접경지역·문화재 규제 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표 경제구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인천시당위원장)은 23일(금),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강화군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자구역은 외자유치기업 및 리쇼어링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세제감면과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역이다. 인천과 부산, 광양 등지에 271.4㎢ 면적이 지정돼있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자구역의 추가 지정이 가능해진 만큼, 지자체별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날 배준영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건의서를 전달하며 “인천 경자구역은 국내 경자구역 외국인직접투자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입주기업의 절반이 위치해 있어 강화군을 경자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다”며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서해평화도로 2단계 건설사업이 완공된다면 서울 및 영종 경자구역과의 연계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며,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강화군은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임에도 수도권 규제와 접경 지역 규제, 문화재 규제 등 과도한 규제에 놓여있다”며 “인천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강화군의 잠재력이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경자구역 추가 지정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로도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지난 21일(수)에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강화·옹진군을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 강화,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수



배준영 의원, 강화군 남단 경자구역 지정 건의

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및 본회의 통과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 강화·옹진군민 1가구 2주택 중과세 제외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 서정진 기자

기고

이경수

강화 충렬사를 알아봅시다



강화 충렬사

흥선 대원군의 서원 철폐

1871년(고종 8), 흥선 대원군이 명령했습니다.

“영원히 높이 받들어야 할 47개 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원들은 모두 제사를 그만두게 하고 현판을 떼어내도록 하라.”

이게 바로 흥선 대원군의 업적 중 하나로 말해지는 ‘서원 철폐’입니다. 당시 전국에 있던 서원이 600여 개라고도 하고 1,000개가 넘었다고도 합니다. 정확히 몇 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전국의 서원이 사라지고 딱 47개만 살아남았습니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점점 조선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 갔습니다. 교육 기능은 부실해지고, 정치 싸움의 지방 거점 역할을 하는가 하면, 힘없는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 재산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납부는 회피해서 국가 재정을 어렵게 했습니다. 대개의 서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거친 반대를 무릅쓰고 서원을 대거 없애버린 겁니다.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등 살아남은 서원 47개의 명단이 《고종실록》에 실렸습니다. 그냥 한번 세어봤어요. 46개입니다.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싶어서 다시 세어봤어요. 또 46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록 편찬자가 실수로 서원 한곳을 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철폐되지 않은 서원 명단 중에 ‘강화 충렬사(江華 忠烈祠)’가 있습니다. 아니, 충렬사가 서원이란 말인가? 딱 꼬집어서 서원이라고 말하기는 거시기하지만, 서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아 서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단 47개 서원 속에 강화 충렬사가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됨이 중후하고 근신했으며, 해야 할 일을 만나면 임금이 싫어해도 극언하였고, 항상 몸을 단속하여 물러날 것을 생각하며 한결같이 바른 지조를 지켰으니, 한 시대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다가 국가가 위망에 처하자 먼저 의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므로 강도의 인사들이 그(김상용)의 충렬에 감복하여 사우를 세워 제사 지냈다. 《인조실록》

강화 사람들이 병자호란 때 순절한 선원 김상용을 위해 사우를 세워 제사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 사우(祠宇)가 바로 충렬사입니다. 사우는 서원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사우를 서원보다 격이 약간 낮은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만, 조선 후기에 이르면 서원과 사우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게 그거로 인식됐습니다.

사우 중에 순수한 사당 기능만 한 곳이 있고, 서원 처럼 교육 기능을 병행한 곳도 있습니다. 강화 충렬사는 제사와 교육을 함께 행했습니다. 동재·서재 등 교육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등록 학생수가 90명일 때가 있었고, 200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현렬사에서 충렬사로

그러면 충렬사를 창건한 것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병자호란 이후겠지요. 1642년(인조 20)에 세웠는데 처음 이름은 현렬사인 것 같습니다. 강화의 읍지들에 충렬사의 원래 이름이 두 개 나와요. 현충사(顯忠祠)와 현렬사(顯烈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는 현충사라고 설명하고 어디서는 현렬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충렬사 건립 당시 인물인 이식의 글 중에 ‘강화 현렬사 상량문’(江華顯烈祠上梁文), ‘강도 현렬사 춘추양정축문’(江都顯烈祠春秋兩丁祝文)이 있습

니다. 따라서 충렬사의 본디 이름을 현렬사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현렬사를 충렬사로 이름 바꾼 이유는 무엇까요?

사액(賜額)됐기 때문입니다. 1658년(효종 9)에 사액되면서 현렬사가 충렬사(忠烈祠)가 되었습니다. 사(賜)는 임금이 하사, 즉 내려준다는 뜻이고 액(額)은 액자, 현판 같은 걸 말합니다. 서원(사우) 이름을 쓴 현판을 나라에서 내려주는 것이 ‘사액’입니다.

사액서원(사우)이 됐다는 것은 나라에서 공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액되면 나라에서 노비와 책 등을 내려줍니다. 땅을 주기도 하고 서원 소유 토지의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액서원은 일반 서원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서원과 사우가 사액받기를 원했겠지만, 실제 사액되는 경우는 일부였습니다.

나라에서 현렬사에 내려준 현판에 ‘忠烈祠’라고 쓰여 있으니, 현렬사가 자연스럽게 충렬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충렬사’가 강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 통영, 남해 등 전국 여러 곳에도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을 비롯해 임진왜란기의 인물들을 주로 모십니다. 그래서 ‘강화 충렬사’로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풍기(지금 경북 영주)에 건립된 백운동서원입니다. 1543년(중종 38)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웠습니다. 그곳 출신인 안향을 모셨습니다. 얼마 뒤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항이 임금에게 사액을 요청했습니다. 1550년(명종 5)에 백운동서원은 紹修書院(소수서원)이라고 쓴 현판을 임금에게서 받았습니다. 사액서원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백운동서원의 이름이 소수서원으로 바뀝니다.

강화 충렬사에 김상용(金尙容, 1561~1637) 한 분



충렬사 사당



김상응 초상화(출처 중앙일보)

만 모신 게 아닙니다. 창건 당시 김상응 등 7명을 모셨는데 이후 배향 인물이 점점 늘어나, 지금 29명이 되었습니다.

김상응, 이상길, 심현, 이시직, 윤계, 송시영, 구원일, 황선신, 윤전, 권순장, 김익겸, 홍명형, 강흥업, 이돈오, 홍익한, 황일호, 윤집, 민성, 김수남, 이돈서, 안몽상, 전기업, 이삼, 김득남, 강위빙, 황대곤, 차명세, 어재연, 어재순

병자호란과 관련하여 순절하거나 전사한 분들입니다. 강화에서 생을 마감했거나, 아니면 강화와 연고가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두 분은? 어재연·어재순 형제입니다. 신미양요 때 전사한 인물들이죠. 현대 시대인 1975년부터 어재연과 어재순을 충렬사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충렬사는 병자호란과 신미양요 관련 인물을 함께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재연·어재순 배향을 좋게 해석하면, 충렬사의 역사상이 다양해진 것이고요, 좀 안 좋게 보면 충렬사 고유의 정체성이 흐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병자호란이든, 신미양요든, 지금의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되는, 고마운 선조들을 모신 곳이 바로 충렬사라는 점입니다.

입으로는 의(義)를 외치며 몸은 이(利)를 따르는 세태 속에서,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놓으며 지조를 지켜낸 이들의 정신은 민주 세상에서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충렬사 산책

자, 가봅시다. 선원면 선행리 충렬사입니다. 충렬사 자리가 선원 김상응의 집터라는 기록도 있고, 김상응의 집터 근처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아담합니다. 하지만 뭔가 기품이 배어있는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정비한 주차장 옆으로 화장실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동쪽으로 선 외삼문은 잠겨 있습니다. 남쪽으로

남 쪽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비각이 우뚝! 1701년(숙종 27)에 세운 '강화 충렬사 비'입니다. 읍내 용흥공원에 있는 김상응 순의비를 세운 게 1700년(숙종 26)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건립한 것입니다.

병자호란의 경과와 김상응, 이상길, 심현 등 순절한 인물 그리고 '삼충신'으로 불리는 황선신·강흥업·구원일의 행적을 새겼습니다. "종묘사직과 원손이 여기에 있으니, 이곳은 나의 죽을 땅이다." 김상응이 이렇게 말하고 자폭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충렬사 비문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대부들이 평소에는 도리를 말하여 참으로 사생(死生)과 의리를 구분할 줄 아는 것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큰 난리를 만나면, 나라를 배반하고 살길을 엿보며 몸을 욱되게 하고 이름을 망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는 극히 드물다.

곱씹게 됩니다. 현대 시대에 적절히 대입해 봐도 될 듯합니다. '사대부'라는 주어를 다른 것으로 바꿔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비각 안쪽으로 마당이고, 마당 양 끝으로 정갈한 건물 두 채가 마주 보고 있습니다. 수직방과 전사청이라고 하네요. '수직방·전사청' 부분은 다음 호에서 조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뒷마루에 잠시 앉았다가 내삼문으로 들어갑니다. '충렬祠'라는 현판 걸린 사당입니다. 정면 3칸의 단아한 건물입니다. 사당 안 중앙에 김상응 선생의 위패를 모셨고, 좌우로 각각 열넷, 그래서 모두 스물아홉분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묵례하고 나오며 김연광이라는 이를 떠올립니다.

김연광, 그는 강화 양도에 살던 가난한 대장장이였습니다. 1876년(고종 13) 충렬사 중수 때 건물에 들어가는 각종 쇠붙이를 만들었습니다. 일이 끝나서 품삯을 주려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라, 받으라 강권해도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김연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충렬사 일에 어찌 품삯을 받겠습니까." 내삼문 쇠문고리를 만지



충렬사 비

작만지작해 봅니다. 이걸 김연광이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쇠문고리를 통해 그를 그려봅니다.

이제 여담 하나 덧붙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원 김상응은 추앙받아 마땅한 역사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순절 '방법'이 옳았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자호란, 강화성이 청군에게 함락될 무렵, 김상응은 남문루에 있었습니다. 화약을 터트려 자폭했습니다. 물론 선생 나름의 당위성이 있어서였겠지만,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그때 강화에서 순절한 이들 대개 조용히 목을 맷습니다. 그런데 김상응 선생은 강화성 방어의 핵심 구역인 남문루에서 화약에 불을 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문루를 폭파한 셈입니다. 더구나 화약은 총과 포를 쏘는 데 사용할 귀한 무기입니다.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화약이 폭발하고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남문 주위에 있던 백성들 여럿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화도 2000만 관광객을 더 즐겁게 하려면...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전 인천일보 일간경기
현대일보 편집국장)

봄이 다시 온다. 강화도가 그 봄을 다시 부른다. 마니산 정상의 시원한 봄바람부터 고려산 진달래, 교동도 화개공원과 대룡시장, 석모도 해안길과 일몰, 해안가의 드넓은 갯벌과 근대 유적, 북녘땅과 마주한 채 강가에 둘러쳐진 낯선 철책들, 포구와 풍물시장의 비린내까지...

이제 봄바람이 살랑대면 강화도에는 상춘객(常春客)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다. 강화도에서 봄 관광객들이 들썩일 것을 생각만해도 벌써 봄의 기운과 생동감이 밀려오는 느낌이다. 관광객들은 강화도의 보물들을 보고 만지고 즐기며 다시한번 강화도가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며, 한반도 역사 그 자체임을 두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섬과 바다는 물론이요, 전통과 근대, 현대가 어우러진 강화의 여러 관광지에서 잊지 못할 2024년의 추억을 만들어 갈 것이다.

눈만 즐거운 게 아니다. 입호강도 빼놓을수 없다. 강화 특산물인 인삼과 새우젓, 순무, 노랑고구마와 밴댕이는 입맛을 사로잡는다. 화문석과 소창 만들기 등 강화만의 체험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잠시나마 '나는 강화인'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해 강화도를 찾은 누적 관

광객은 1735만명이었다. 올해는 20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화군은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럼 2000만 관광 시대를 맞아 강화군과 강화군민은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무얼 준비해야 할까.

가장 먼저 강화군은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에 최대한 신경써야 한다. 특히 관광지에서의 안전은 백번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해빙기가 시작됐다. 올겨울은 유난히 일교차가 심했다. 겨우내 얼었던 길과 산, 야외가 녹는다. 녹는 땅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보수하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안전사고를 불러올수 있다. 심하게 파인 도로, 경사도가 심한 등산로 일대의 낙석, 등산로 계단이나 데크, 안전펜스 등의 훼손이 우려된다. 강화군이 나름 스케줄대로 안전 점검을 하겠지만 봄날이 열리는 지금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개장해 강화의 명물로 떠오른 교동도 화개정원의 경사도는 만만치않다. 특히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모노레일이 깔린 경사도의 안전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해안가와 산의 둘레길을 비롯해 각종 등산로, 주차 시설 안내 등 안내 표지판 점검도 필수다. 많은 관광객이 강화도에 오려면 교통정체부터 떠올린다. 도로 확장으로 당장 해결할 순 없지만 곳곳의 주차장과 화장실 등 공중 시설의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강화군민들은 어떡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친절과 상냥'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겠다는 마음다짐이다. 어렵지 않다. 관광지를 안내할 때, 특산물을 사고팔 때 한번 더 웃어주고 한번 더 친절함을 보이면 된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인천의 어느 유명 관광지는 '바가지 상훈'의 유명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몇 년전 관광객들에게 불친절하면서도 턱없이 비싼 음식을 팔았다는 뉴스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그 곳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해당 지자체와 상인회 등이 나서서 여러 차례 이미지 개선을 시도했으나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관광이 주된 먹거리인 강화도에겐 반면교사다.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3만 2000여명이 다녀갔다고 한다. 내국인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다. 외국인을 위한 DMZ둘레길과 평화전망대 등 강화도에서만 즐길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화도는 접경지다. 섬 북쪽에서는 북한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깝다. 이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외국인 관광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제 곧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진다. 모두 기지개를 활짝 펴고, 그리고 두팔을 활짝 벌려 강화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자. 그들에게 강화도만의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정(情)과 인심을 듬뿍 선사해보자. 그러면 2000만, 3000만의 관광객이 다시 강화도를 찾을 것이다.



(주)뉴월드오토컴퍼니 김영식 대표...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고액 기부자 강화군, 2024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고액 기부자 탄생



김영식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된 2023년에도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연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올해에도 500만 원을 연이어 기부하며 2년 연속 강화군의 최고액 기부자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양사면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시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 지역사회에 더 큰 나눔을 실천했다.

김영식 대표는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의 고향인 강화군 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2년 연속 고향사랑 기부로 강화에 마음을 보내준 김영식 대표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주민 복리와 지역발전에 사용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전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강화군에 기부를 희망하는 분들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을 방문해 기부 가능하다.

양사면 기업·단체,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강화군 양사면 기업·단체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지난 15일에는 양사면 농업회사법인 (주)콩세알(대표 서정훈)에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3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규숙)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0만 원을 강화군에 지정 기탁했다.

(주)콩세알은 콩 관련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매년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

시 어르신 위문품 및 장학금 전달, 반찬 지원 등을 통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단체이다.

서정훈 대표는 “평소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천호 강화군수는 “지속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복지 욕구를 파악해 꼭 필요한 사업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모 모교 ‘교동중학교’에 발전기금 기부

프로게이머 초비 정지훈, 어머니 모교에 전년에 이어 2000만원 쾌척

리그오브레전드(LoL) 프로게임단 Gen.G 소속 게이머 정지훈(초비)군이 어머니의 모교인 교동중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지훈군은 자신의 어머니인 전미영씨(교동중학교 29회 졸업생)의 모교 ‘교동중학교’에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쾌척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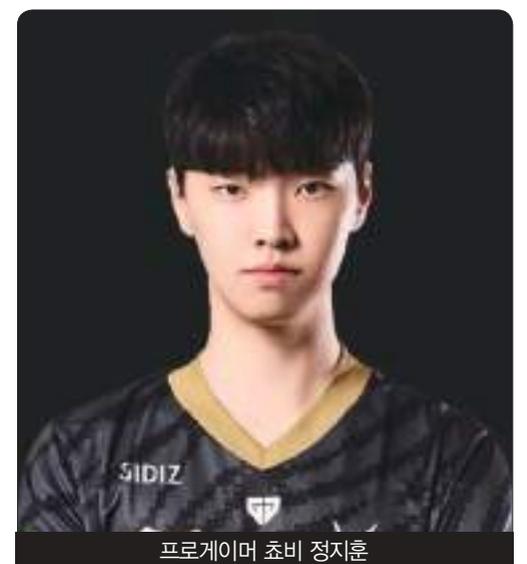
정지훈군은 프록게이머로 데뷔한 이후부터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피해자 지원금 1000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자신의 모교에 장학금 전달, 결손가정 아동 및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기부 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3년 3월에는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활동에 써달라며 ‘세이브 더 칠드런’에 3,000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8월에는 수해지역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3500만원을 기부했다. 이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기부까지 합치면 정지훈군의 기부금은 2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머니 전미영씨에 따르면 정지훈군이 앞으로도 교동중학교에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꾸준히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년 생 프로게이머 정지훈군은 자신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게 자신의 꿈이자 자신의 어머니의 꿈이라고 밝히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프로게이머 초비 정지훈

- 서정진 기자

(사)강화모범운전자회, 제19대 송명신 회장 취임

교통질서 확립,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운전자

(사)강화모범운전자회는 지난 22일 50주년 기념행사 및 제19대 회장 송명신, 총무 문태일 취임식을 하였다.

1973년 초대 박남걸 회장을 중심으로 강화군 관할구역내 주민참여와 사회에 자립활동 및 교통질서 확립으로 창립하여 현재 송명신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 28여명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1973년 창립이래부터 현재까지 교통혼잡지역에서 군민의 교통안전지도와 수능수험생 무료수송 등 교통보조 업무수행,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일환으로 우범지역 순찰, 특히 고인돌, 진달래 축제, 해변마라톤대회 및 각종 군민행사에 자원 교통보조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 R.H근무도 활성화 하고 있는 단체이다.



단체연혁

- 1973 ~ 1975년 1대 박남걸 회장
- 1975 ~ 1979년 2대 박남걸 회장
- 1980 ~ 1981년 3대 차대성 회장
- 1982 ~ 1984년 4대 정상채 회장
- 1985 ~ 1986년 5대 전호재 회장
- 1986 ~ 2000년 6, 7, 8, 9, 10대 윤성기 회장
- 2001 ~ 2003년 11대 김종민 회장
- 2004 ~ 2013년 12, 13, 14, 15대 김보모 회장
- 2017 ~ 자랑스런 강화인상 애향봉사부문 수상
- 2014 ~ 2018년 16대 김원길 회장
- 2019 ~ 2023년 17, 18대 김경환 회장
- 2024 ~ 현재 19대 송명신 회장



훈·훈·한·투·고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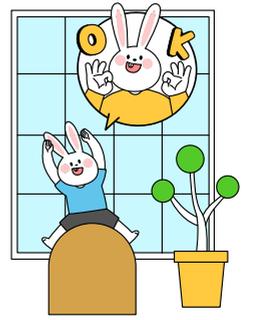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광고 후원 ☎ 032.933.1080



강화군보건소,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의 힘



26일부터 필라테스, 헬스업 스트레칭 등 '운동교실' 운영



강화군보건소 운동교실



강화군보건소 운동교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26일부터 12월 11까지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운동교실을 주 2회 운영한다.

전문 체육지도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신청자의 체지방량 및 근력 등을 측정한 후 기준에 적합한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전년도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매트 필라테스와 헬스업 스트레칭이다.

매트 필라테스는 웨이트 볼 및 소도구를 이용해 신체 밸런스와 유연성을 키우는 전신 운동이다.

매트 필라테스 신청자 중 운동교실의 일정기간을 꾸준히 한 후, 체지방량 측정 결과 상위 30%를 선정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진행한다.

헬스업 스트레칭은 라텍스 밴드와 소도구를 이용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으로, 신청자 중 근력 측정 결과 하위 30%를 선정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운영한다.

강화군은 이번 운동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주민들의 비만과 근감소증 개선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면서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서정진 기자

문의 ▶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팀(☎930-4075)

봄!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자!



충분한 수면과 영양섭취는 골고루!

봄 환절기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겨울에 비해 활동량이 갑자기 많아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되는 등 많은 에너지 소모로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력이 쉽게 약화될 수 있어 충분한 잠과 알맞은 영양분 섭취와 운동, 기초체온 올리기 등의 관리를 해야한다..



비타민C와 단백질 섭취 충분히

환절기 면역력을 지키려면 평소 균형 잡힌 식단을 기본으로 면역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을 섭취해야한다. 특히, 환절기에는 비타민C의 소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과, 귤, 고추, 양파 등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주고, 육류와 콩, 생선 등의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적당한 운동 습관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환절기에는 신체리듬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수 있어 겨울 내 운동을 하지 않다가 무리하게 움직이면 자칫 관절이나 인대 등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시작으로 차츰 운동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다.

- 서정진 기자



쉐프의부엌 화덕피자 & 파스타

영업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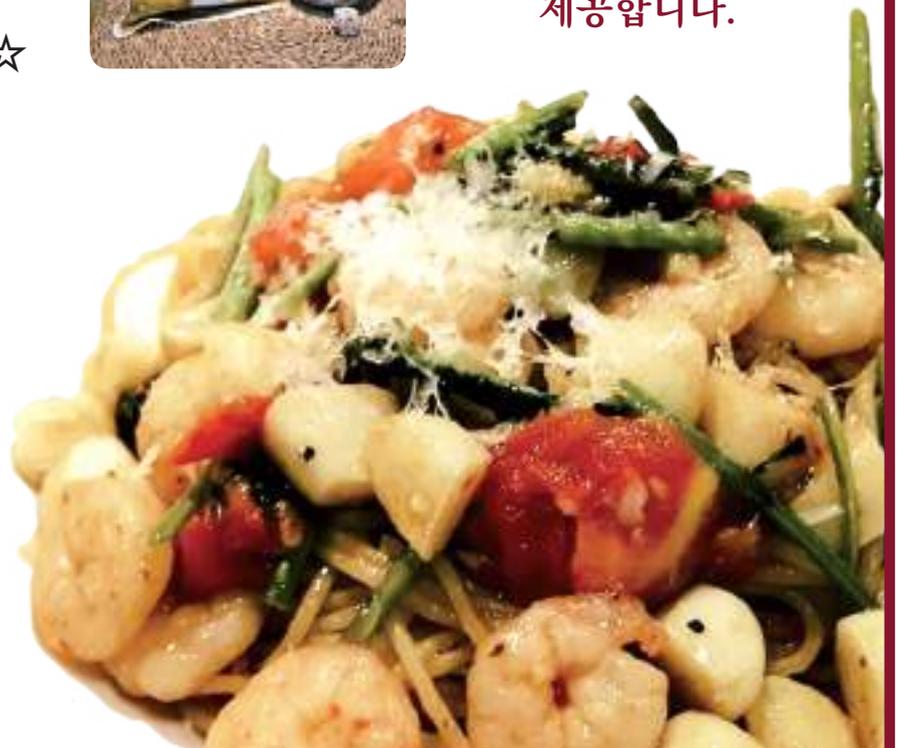
OPEN AM 10:00

CLOSE PM 09:00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정기휴무
 ☆정기휴무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영업☆



쉐프의 부엌에서는
 강화도 농산물과
 재철 채소를 사용하여
 정성담은 음식을
 제공합니다.



032-934-989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30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